

4·15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박원순 남자·이낙연 사람

	
김원이(51)	우기중(64)
학력	성균관대 사학과
경력	(전)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김대중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주요 공약	·근대역사문화특구 지정 ·목포 선창 경제활성화 ·목포·신안 세계 섬의 수도 육성

목포시
김원이 서울 정무부시장 역임
우기중 전남 정무부지사 출신
본선서 강력한 후보들 상대
민주당 바람 일으킬 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선거구 경선 후보로 김원이·우기중 예비후보를 확정하면서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선 대결이 주목된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탓에 '박원순의 남자'로 불리고 있고, 우 예비후보는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만큼 '이낙연의 사람'으로 꼽힌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 총리는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두 후보 간 경선 대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에서 강력한 현역 국회의원인 박지원·윤소하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이들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를 본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원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는 등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을 해왔다. 반면, 우기중 예비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내는 등 정통 관료 출신으로 꼽힌다. 2014년부터 4년간은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김원이 예비후보는 '목포역 부지 시민광장 조성'과 '근대역사문화특구 지정' 등 10대 공약을, 우기중 예비후보는 '스마트 블루시티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도 목포!'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기중 예비후보가 중앙당으로부터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치로 감점 15%의 징계를 받으면서 이번 경선

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우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15%의 감점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예비후보의 대결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등 경선 초반부터 한치의 양보 없는 성명전과 비난전이 이어지면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우 후보 측이 중앙당의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처 징계에 '사후 처벌규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선거 사무소를 천막캠프로 옮기기도 했다. 우 후보 측은 '박원순 사람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이낙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 목포지역 경선을 '박원순 VS 이낙연'의 대결 프레임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는 경선 후보 확정 이후 정책을 강조하면서 막바지 경선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김 예비후보는 "이해전 대표가 강조했던 '원팀정신'을 잊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책 경선을 치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 예비후보도 "(감점)이 억울하지만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되 비방·중상모략하지 않고, 목포시민들을 믿고 끝까지 정책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목포형 일자리 5000개, 전남형 일자리 2만 개 창출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목포 선창경제 활성화 ▲원도심, 중도심, 신도심이 고루 잘 사는 균형도시 목포 ▲목포 시민민주당의 구현을 위한 공론화위원장 '유담정담'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우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산경제 중심도시 건설 ▲(가칭)국립 해양수산정보원 신설 추진 ▲저온 복합 물류센터 유치 ▲목포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해남 윤씨 '집안 경쟁'

	
윤광국(61)	윤재갑(65)
학력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 자문위원 (전)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
주요 공약	·농어촌 에너지생산 기본권 부여 ·연안 여객선 공영화 ·마을번호사 제도 도입

해남·완도·진도
윤광국 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윤재갑 해군1함대 사령관 출신
전남서 가장 먼저 경선 확정
본선서 운영일 의원과 맞붙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부터 본선까지 '해남 윤씨(海南 尹氏) 집안 경쟁'이 펼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윤광국(61)·윤재갑(65)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경선 승자는 본선인 4·15 총선에서 운영일(63) 대안신당 의원과 맞붙는다.

이 선거구는 지난 13일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민주당 경선이 확정됐다. 두 후보자는 일찌감치 섬과 육지를 오가며 표밭 갈이를 하느라 분주하다.

윤광국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 등 27년의 감정평가사 경력을 바탕으로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워 자신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해남에서 감정평가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주민들과 접촉해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해남군수 경선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이에 맞서는 해군 1함대 사령관 출신의 윤재갑 예비후보는 농촌에서 태어나 바다를 지키고, 다시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 사퇴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재출마 도전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유통 특별위원장,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에 경선에서 표심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내 고장 농촌·어촌 인구를 늘리겠다는 방향에 같지만 세부 공약은 사뭇 다르다.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윤광국 예비후보는 ▲농어촌지역 세대당 에너지생산 기본권 부여 ▲해남공고·진도실업고 전공과 개편 ▲농수축산물 전용 흡수필 방송채널 신설 ▲도서지역 연륙교·연도교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농어촌지역 에너지생산 기본권 부여 공약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이 농어업 외 추가 소득을 일으켜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농어촌지역은 소득이 낮다. 우리 지역은 지역경제 전문가가 절실하다. 저는 경제에 정통하며 젊고 추진력이 강하다"며 "경선에서 승리해 4년 전 빼앗겼던 텃밭을 되찾아 지역민과 당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라는 슬로건 아래 세부 공약을 만들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산모토피아 건설 ▲글로벌시대 걸맞은 인재 육성 지원 ▲중년들이 힘쓸 수 있는 지역 만들기 ▲판교 남도가 아닌 대한민국과 세계의 시차점 만들기 등이다.

산모토피아 공약은 어린이 응급 상황 및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 도입 및 국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구체화했다. 청년을 위한 공약은 임대주택 건설, 농어업 타전 만들기 지원, 관광 등 지역이 가진 강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중장년을 위해선 중년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평생 직업터 만들기, 치매안심센터, 요양원 확충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영호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말처럼 '가장 해남·완도·진도다'가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한다. 지역이 가진 강점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연결하려고 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낙낙한 세상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시설공단 설립 추진

영락공원·월드컵경기장 등 관리 타당성 검토 거쳐 내년 1월 개관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흩어진 영락공원, 체육시설 등을 모아 관리할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이곳 저곳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 등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사업 중 일부를 수탁 운영할 지방 공단 형태의 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

행안부는 시설 관리 기능 집중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기존 운영 시설 중 추가로 공단에 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시는 공원(광주 시민의숲 야영장), 추모 시설(영락공원·망월묘지), 고객관리

시설(충장로 지하상가·진곡 화물차고지·평동 화물차고지), 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영주동 골프 연습장 등 13곳) 등 4개 분야, 19개 시설 관리를 공단에 맡길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 시설은 광주도시공사, 시체육회 등에서 관리해왔다.

시는 조만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6개월여에 걸친 검토 기간을 거친 뒤 행안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운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르면 내년 1월까지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설공단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은 광주 5번째 공사·공단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공단은 이미 전국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설립해 운영 중"이라며 "분산된 시설들을 집중해서 관리한다는 취지대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조직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코로나 19 확산 영향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된다.

전남도는 20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과 지급을 위해 2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접을 고려해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입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입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입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올 전기차 342대 보급

전체 20% 취약계층·다자녀 우선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승용차 272대·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광주 거주자, 광주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단체 등이다. 출고 순으로 보급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차종은 화물 경형 1종,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당 650만원

에서 1400만원,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체 20%는 취약 계층·다자녀·택시·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